

대립 제 3 주일

기도서 P. 217 B해

제1독서(이 사 61,1-2.10-11)

제2독서(데살로 5, 16-24)

복 음(요 한 1, 6-8.19-28)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마음의 등불을

김 순 태 신부

우리 숙담에 “백년을 다 살아야 3만 6천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일궈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례히 이맘때이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슬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출발은 어떠하였습니까? 서럽도록 무거운 가난을 벗어보자고 거친 손을 움켜쥐던 부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칼질하도록 아픈 과오를 끊어 버리겠다고 눈물의 결심을 맹서한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 하나 귀한 것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두손모아 무릎을 꿇었던 투병의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나온 우리의 길들은 얼마나 어두운 골짜기였습니까? 함께 이루어주어야 할 사랑하는 이가 죽어갔고, 찢들린 가난때문에 진밤을 한숨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체바퀴만 돌려야 했던 하루의 모퉁이마다에서는 또한 비틀거리는 탄식도 많았을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홀로 고아가 돼버린 자신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뾰족탑 종각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는 또 얼마나 절절이든 마음들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캄캄한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그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또 한고개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속에 빛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어두움속에 잠겼던 모든 것들은 살살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어두운 밤을 좋아하듯, 그늘속의 후손들은 그 빛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 8, 12)

사랑하을 신자 여러분!

이제 그 여명의 빛은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추어 주는 희망의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별건 내일이 되어도 어두운 낮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빛을 잃은 때문입니다. 별과 달이 없어도 캄캄하지 않은 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없어 등불을 못키고 방황했듯이, 우리 마음안에 한가닥의 등불마저 꺼져가는 날, 우리는 어둠의 미로를 방황할 것입니다.

종달새는 여명이 밝아오는 창공에서 노래하지만, 들복새는 어둠이 깔리는 구석지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두운 밀바닥을 기는 생존과 맑은 창공을 날으는 존재의 차이는 바로 빛과 어두움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찢들려 땅을 팔아 빵을 사고 피를 토하며 목숨을 이어가도 행복만 생겼던 것이 있다면, 빈두리는 눈으로 울무를 놓고 그 멍때기를 벗겨 먹으면서 살찌어 있어도 비참한 생존이 있습니다. 발기 발기 찢어지는 상처를 이고 살아도 메아리를 남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지 웃음을 팔며 복을 치고 살아도 비명(悲鳴)을 남기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빛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빛을 준비하는 그때가 닥아왔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켜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마음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의 고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산 둔용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늘 깨어 있어라 (3)

—신중과 끈기와 용기

최근 몇 해 동안에 한국 천주교회는 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해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교회의 사회참여>라는 자세 표명이며 행동이었다. 이 겁에 있어서 교회 내부가 반드시 일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깥 사회 사람들에게 “느껴지기로는 천주교회가 그 참여적 자세를 지향하여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인권·노동정의·인본자유·민주회복, 이런 주제를 내건 시국기도회도 종종 있었고, 또 이런 운동을 주관하던 기구들, 성직자들의 열성적인 움직임이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그런데 1978년 한 해 동안에는 별로 그런 활동이 눈에 띄지 않은 것 같다. 있었다면 가톨릭 농민회가 농협의 고구마 수매 부정사건을 문제삼아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것과, 전주교구에서 경찰의 폭력행위에 항의하여 당국자들의 사과를 받은 일이 기억된다. 이런 일들은 구체성을 띠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종래에 기도회에서 제기해온 주제들처럼 보다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은 아니었다고 보게 된다.

그러던 근년에 교회 공식 기구와 또는 사제단이 사회 사람들 앞에 내보였던 주장들이 이제 다 해결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부정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년에 교회가 사회정의의 운동을 펼 때 사회의 청년 지식인들이 많이 천주교에 입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또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을 보고 근로대중이 천주교회에 기대를 걸게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교회에 쏟린 이 기대들은 결국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들도 분명해져 있지 못한 것 같다.

...사명은 커다란 신중과 끈기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김병도 신부, 경향잡지 12월호에서)

숲 정 이 산책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이 철 순(마리아)

예수께서 니고메모를 향해 하신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느님 나라이고 (요한 3, 1-21)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의 기도문에는 “그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였으니 하느님 나라는 장차 나타날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흥미있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사이와 사람들을 향해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사실이다 (루카 17, 20-21).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세계로 앞으로 이 땅위에 실현될 나라일뿐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생각만 해서는 안되고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세상에는 짝만 대하거나 오래 사귀거나 언제 보아도 항상 편안하고 반가운 사람이 있다. 반드시 가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도 아니며 독특한 재간이나 비상한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별다른 불평이나 불만없이 사는 사람이다. 어느 무명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름 풀 무정환 그 그늘에 울해도 반디벌레 풀꽃이 자색으로 피었네. 나의 벗이여, 이 인생에는 오직 하나 이 풀꽃을 닮은 생각이 있어 목숨을 생각 않고 명예 따지지 않고 보수도 많지 못한 일을 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그 깊은 정성과 사랑이여라.”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니에프가 하루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거지가 나타나 동전 한푼을 요구하였다. 그는 자기 주머니를 다 뒤져보았으나 불행히도 한푼도 없었다. 그는 자기 앞에 내민 거지의 손을 덥석 잡으며 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 거지는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말하기를 구걸하는 평생에 이렇게 기쁜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였다니 그 순간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천국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만원버스 속에서 당신이 피곤하여 손잡이에 매달리듯 서 있을때 당신의 피곤한 표정을 보고 온종일 노동에서 달렸을 허름한 차림의 젊은이가 성큼 일어나 가까이 자리를 양보하는데 서로 상대방에게 자리를 권하며 앉지 않을 때 거기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는다.

배가 난파하여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하나뿐인 구명대

를 가운데 놓고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지 하며 서로 구명대를 밀어주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생명을 건지는 유일한 기회를 서로 양보하는 사랑속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느님 나라는 누군가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J. O. C. (가톨릭 노동청년회)는 천국을 만들어 보자고 모인 단체이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방공호 속에 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싸움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천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지옥을 깨뜨려야 할 때이다.

요즘은 귀가 따갑도록 떠들어대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는 농민들이 땅의 댓가를 지불해달라는 것과 노동자들이 똥을 먹고는 살 수 없다는 외침이 있다. 노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계가 돌아가듯 움직여서 일해야 겨우 3만원의 월급을 받아 동생 학비대고 부모님께 생활비 보조해드리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들과는 반대로 그 기업주는 하루 술집에서 버리는 돈이 30만원대지 50만원이라니..... 그런 사람들이 하루 기생집에서 쓰는 돈이 노동자 10여명의 뼈빠지는 한달 임금이다.

도저히 살 수 없을뿐 아니라 도저히 인간대우를 받지 못해서 인간대우를 해달라고 외치는 이들, 배고픈 이들에게 똥을 먹이고 여공들에게 똥을 먹이는 일이 이 민족 사회에서 자행되었다. 게다가 이제는 똥을 먹지 않는데 인간에게 똥을 먹였다니 이는 노동자들을 개보다 못하게 본 것이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손을 투르게니에프처럼 따뜻하게 잡아주는 못할망정 똥을 먹이다니..... 노동자들에게 기업주가 살짝 웃어만 주었어도 그들은 만족하고 행복해 했을 것이다. 아니 몇백만원의 월급보다 더 기뻐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 그냥 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으로 다른 이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어린 아가씨들은 갖은 교육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 나라 건설에 전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신자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음을 굳게 믿는다고 하였으니 우리도 우리 주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들과 함께 하느님을 '모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여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 교육용 · 가정용 · 교회용 · 연주용

당신을 위한

써니 (SUNNY) 전자 울건

※ 교우들에게 특별 영가 봉사

☆ 대리점 :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 대 표 : 염 규 철 (요섭) 2-6111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이세)

하느님, 이것도 참회를 하여야 하나요?

—타인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김 병 열 신부

남원의 명물하면 광한루의 오작교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춘향고을에 사는 사람, 그중에도 여자에게 물어 보면 그렇지만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남원 동편에 남북으로 흐르는 요친강이 있다. 이 물은 지리산과 금강과 섬진강의 분기침을 이루는 수분리에서부터 맑은물이 강처럼 흐르는 물이다.

더욱 삼복의 여름철이 되면 이 강은 남원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그중에도 밤이 되면 대중의 목욕탕이 되어 버린다. 낮에 흘렸던 땀과 때를 털어버리기 위하여 목에 수건을 걸치고 이 강에 모여든다. 오물을 씻은 다음 이 강에서 잡은 메기탕에다 소주 한잔에 들것날에 싸서 먹는 친어의 맛은 물이 떠다가 씻이 죽어도 모를 감칠 맛이다.

그런데 어느 여름밤, 동기 신부 한분과 요친강의 물을 따라 가다가 동림교를 지나 육모정쪽으로 구부러져 한적한 곳으로 가서 포장집에 자전거를 갖기고 탈의를 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물에 들어서자 그이는 재빨리 옷을 걸치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물론 3m 이상은 잘 보이지 않는 밤이니까 누가 누구인지 도저히 분별하기 힘든 밤이었다. 일을 마치고 포장집에 갖긴 자전거도 찾고 한잔 채킨 작정으로 들어서자 주인 아줌마는 눈을 휘둥거리며 놀란 표정으로 “아저씨들이 저 위에서 목욕을 하였나요?” “그렇습니다만”. 그곳에서 목욕하던 여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침없이 옆까지 오다니” 하면서 따잔다고 기다리다 방금 갔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신부, 그러면 그렇지 어쩌지 살갓이 하얀것 같더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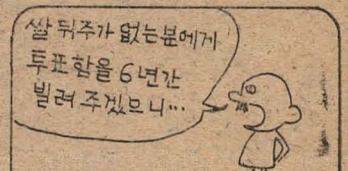
웃어 버리고 지나쳐버릴 일이 아닐것 같다. 때가 밤이었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양심의 가책이 어찌고 저찌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 편으로 보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하등의 무엇도 없으나 여자쪽으로 바서는 하나의 피해자 일지 모른다. 물론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화는 난 것이다. 미안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는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사소한 피해를 주는 일이 가끔 있을지 모른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전취득권을 하였다든 이유로 같이 차를 탔으면 동종의 권리가 있는데도 자리를 넓게 잡고 다리를 벌리고 타는 일. 극장에서 조용히 영화를 감상하여야 할 때 짹 짹 깨물어대는 껌소리의 공해(音公害). 차림비를 하고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여자가 있는 데도 마구 피워대는 취각공해(臭覺公害). 차표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늦게 와서 열치기하는 행렬공해(行列公害). 중요한 일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집 안방이나 혼자있는 기분으로 소락배기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대성공해(大聲公害). 가차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강론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뽕그득-하면서 시선을 흐트러 놓고 들어오는 시음공해(視音公害). 사업관계로 할 수 없이 밤 12시 10분전에 들어오는 남편을 맞는 아내의 기다림의 공해.....등등.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양심의 가책없는 잘못도 대립시기에 참회를 받해야 하나요? 하느님!

(슈류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섭이 (281) 김병열



결 (축) 혼

이옥련씨 장남 김영렬(요섭)
김유순씨 사녀 박복경(루시아)
일시: 78. 12. 17 <일> 12시
장소: 전주 중앙성당
주례: 서용복 신부님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선(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 2 5 2

최신형 전세버스 환영
□ 기타 국내판
□ 호도 관광 지점업체
③ 4 0 0 0 · ④ 0 9 9 9 4
삼 남 관 광 여 행 사
대표이사: 한 상 오
관광과장: 범 석 배(머뜨)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정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시 중 황 씨 차남 용 배 군
황규동(토마스) 씨 차녀 선 희 양
일시: 79년 1월 4일 오전 10시30분
장소: 전주 천동 천주교회
주례: 김환철 신부님

롯데·해태·유명제과 메이커 대리점
※교우님들에게 특별봉사하겠습니다
식료·과자류 도산매
이 안(李安) 상 회
□관선동 파출소 옆(舊·유안상회)
☎(商)②2681·(自)⑨9724
이 영 문(안드레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 남성 제12차 꾸르실료...79년 1월 4(목)~7(일)
 - ① 자격...30세 이상의 신침이 두터운 교우로 3박 4일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함.
 - ② 신청마감...12월 20일(수), 본당 신부님들의 협조 바람.
 - ③ 수강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께 상의 하셔서 추천 받으시기 바람(회비...10,000원)
- 여성 제 5 차 꾸르실리스타 동창회...17일(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 회비...1,500원
- 젊은이를 위한 대림절(待臨節) 묵상회...22일(금) 오후 7시 반, 가톨릭센터, 지도-법석규 신부
- 중·고등학생을 위한 묵상회...28일(목)-30일(토) 가톨릭센터.
 - * 회비 4,000원(개인 부담은 3,000),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람.
- 불우한 이웃돕기 그림 전시회...22일(금)-27일(수) 명보다실

(중앙)

주임 신부 서 응 복
보좌 신부 보좌 응 승 헌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이 박

전화 ③ 3651
3874

- 판공성사 아직 안보신분은 속히 보시고 성탄을 맞이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227,520원

(서학동)

주임 신부 오 헌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전화 ② 2276

- 부녀주일 : 10시미사 후
- 사도회 상임위원회 : 10시미사 후
- 판공성사 일정 : 21일-1반~7반, 22일-8반~13반, 23일-기타반, 24일-학생·공무원
- 병자성사 : 19일~22일 해당 가정은 사전에 준비하세요
- 성탄 행사안내
제 1부 : 24일 밤 미사전(국민학생·고등학생)
제 2부 : 미사후(각반 친목회)
- 선물교환 : 미사전까지 각자의 선물을 제대에 갖어다 놓으세요
- 성탄 영세식 : 23일 7시 30분(학생미사에)
- 지난주 봉헌금 : 38,7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윤 희
사도 회장 김 성 립

전화 ③ 7032

(숲정미)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감 노

전화 ③ 7366

- 축! 오늘 세례받은 형제들에게 축하합니다
- 년말계산에 차질없도록 약속된 봉헌금 봉헌 바람
- 79년도 봉헌금 입금 : 17일까지 빠짐없이 신입합시다
- 판공일정 : 토요일 오후-직장인·학생
- 성당신축 추진위원회 발족 : 회장-강원모, 부회장-김영철·김미자 (임원진·추진위원 빠짐없이 참석 바람)
- 성탄 전야제 : 24일-자정미사 25일-주일과 같음
- 지난주 봉헌금 : 112,62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종

전화 ③ 3222

- 꼬미씨음 : 오후 2시
- 판공성사 : 주일 전체교우 (오후 2시~8시) 월-동(서)교동, 화-동(서)원산동 수-풍납동·경원동, 목-전동·다가동, 금-노송동·중앙동, 토-합동
- 첫 영성체 : 24일 10시미사중
- 성탄 성야예절(초 지킴)
어린이 성탄-23일 저녁 7시-9시
중·고생 성탄-24일 저녁 7시~10시
일반교우, 성탄-24일 밤 10시~0시
* 성탄 성야미사 특별 봉헌 예물준비
- 성탄미사(25일)-10시, 저녁 7시 (10시미사 후 주임신부 영명축하식)
- 동반회장 섬미운동(교도소, 불우이웃)
- 지난주 봉헌금 : 161,432원 교무금 : 119,700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감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전화 ③ 2182

(파티마)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전화 ② 0915

- 주제 : 무엇이 교회를 분열시키는가?
숲정이 316호를 읽고, 선거전을 보고!
-본당신부 특별강론-
- 지난주 봉헌금 : 42,115원

(북자)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조 성 호

전화 ② 5238

- 사도회 확대회 : 12월 20일 저녁 7시 사도회 임원·반회장 참석 바람입니다
- 영세식 : 12월 23일 저녁 7시 30분
- 첫 영성체 : 24일 공식미사 때